

## 教養教育의 歷史와 精神

吳 麟 鐸

(延世大 教育學科)

### 1. 大學生과 研學의 自由

“대학에서 대학생들은 공부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학생들의 主業을 흔히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언어 사용에는 별로 섬세한 구별이 없으나, 서구의 언어 사용에는 명확한 구별이 있음을 우리는 본다. 국민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각종 학원이나 직업교육기관에서 학생(pupil, schüler)들은 공부한다(learn, lernen). 그러나 대학에서 대학생(student)들은 研學할(study, studieren) 뿐이지 공부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생각에 의하면, 단순한 지식의 수용을 우리는 학습 또는 공부라는 말로써, 학문의 연구를 우리는 연학이라는 말로써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확실히 서구의 대학교육의 전통에서 study 라는 말은 learn 이라는 말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져 왔다. 이 말은 교양이나 경주르라는 의미와 관련된 말로서, 수업을 통하여 지식과 이해와 기술을 획득하며, 실습과 훈련을 통하여 일정한 능력이나 일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감을 의미한다. 반면에 study 라는 말은 마음과 정신에 관련된 말로서, 독서와 성찰로 실험

을 통하여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온 정신을 열심히 집중시킴을, 깊은 사색과 명상에 잠김을 의미한다. 그래서 H.H. Martin 은 “병에 든 기쁨을 관찰하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했다.<sup>1)</sup> 이 문장에서 ‘깊이 생각하였다’가 study 에 해당한다. 우리는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역사를 이러한 언어 사용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연학하는 곳이다. 대학생은 연학하는 자이다. 그리고 이러한 研學은 언제나 일반 교양교육의 바탕 위에서 직업전문적이고 학문특수적인 교육의 과정을 밟도록 모색되어져 왔다.

국가마다 대학교육의 전통에 따라서 교양교육은 대학에서 서로 상이하게 베풀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교양교육이 1,2학년에 집중적으로 짜여져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양교육은 필수 이수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대학은 근본적으로 일반 교양교육이 아닌 직업전문적인 교육을 베푸는 곳이라는 이해가 보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 교양을 위한 교과 과정은 없고 처음부터 의사와 약사 같은 직업특수적이거나 교육학도나 사회학도와 같은 학문특수적인 과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 입학

1)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Encyclopaedia Britannica*, 1976.

의 전제조건으로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일반 교양교육의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의 인정이 요청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이 아비투어(Abitur)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은 모든 국가의 대학에서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교양교육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학문과의 밀접한 관련 안에서 파악되고 짜여졌다. 이를 함께 묶으면 대학교육의 일반적 인 특성이 된다. 고도로 수준 높은 교양교육으로부터 출발하여 학문과 직업의 전문영역으로 나아가는 교육이 대학교육이다.

이미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학생은 공부를 하지만, 대학생은 연학한다. 그래서 서구의 대학 전통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문제로부터 선생과 과목을 선택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웠다. 이러한 자유는 심지어는 재학기간을 정하고 시험기간을 결정하며, 연학을 개성 있게 구성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행사되었다. 그리하여 대학마다 상이한 연학의 길들과 수준들, 그리고 형식들이 이루어졌다.<sup>2)</sup> 대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대학생이 아니며, 연학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지는 않았다. 여기에 교양교육의 문제가 오늘날 다시금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

교양교육은 자유의 개념과 연결되어져서 역사적으로 변천되어져 왔다. 교양이란 자유시민의 자질이기에 때문에 교양교육은 역사적으로 자유시민의 양성을 위한 보편적 도야의 과정으로 이해되었으며, 폭 넓은 지적 훈련이었으며, 인격 형성의 과정이었고,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러한 자유에 기초한 교양교육의 의미와 커리큘럼은 산업사회 안에서 현대 대학교육의 전개와 더불어 흔들리고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정치적 사회화의 과정으로서, 자아 실현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높은 수준으로서,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과학과 기

술공학의 연학을 위한 기초로서, 그리고 지적 능력의 계발과 훈련을 통로로 삼고 있는 전공교육에 결여되어 있는 신체의 단련과 정서의 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이 이해되고 짜여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서양의 古典古代로부터 現代에 이르는 교양교육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관하려고 한다.

## 2. 古代의 ‘一般’ 教養教育 : Enkyklios paideia

동서를 막론하고 古代에는, 즉 교육이 탄생하였던 시대에는 교양교육만이 있었다. 고대 회람에서 Platon 이전에 있었던 교육은 모든 사회계층을 망라한 일반 도야로서의 훈련(Paideia)이었다. 회람어 Paideuo는 어린이(pais)와 진지하게 교제하는 일, 즉 어린이에 몰두함을 의미하였으며, Paideia는 따라서 어린이의 훈련이었다.<sup>3)</sup> 파이테이아는 그러나 곧 고대 회람의 언어세계에서 교육이라는 의미의 말로 정착하였다.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파이테이아를 통하여 미와 선의 조화로운 실현을 이룬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美善性(Kalokagathia)의 이념 아래서 음악과 체육이라는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과정이 형성되었다. 읽기, 쓰기 그리고 합창과 현악기에 맞추어 시를 낭송하는 내용으로 짜여진 음악과 넓이뛰기, 달리기,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씨름의 소위 다섯 경기종목으로 정착되어진 체육은 올림피아에서 대회로 치루어졌으며, 미선성의 실현에 이르는 파이테이아의 길로 정착되었다.<sup>4)</sup>

파이테이아는 최초의 직업적인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케번론자(Sophist)들의 시대에 그들에 의하여 글로써 정리되었다. 그리하여 일반 교양교육의 가능한 전제조건인 전문 문헌들이 탄생하였다. 케번론자들은 종전의 파이테이아를 소년기와 청년기로 나누었다. 소년기에는 읽기,

2) Arbeitsgruppe am Max-Planck-Institut für Bildungsforschung, *Das Bildungswes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mburg, 1984, S. 230.

3) A. Dolch, *Lehrplan des Abendlandes*, Ratingen: Henn, 1971, S. 18.

4) 같은 책.

쓰기, 시낭송 이외에 셈하기와 사물을 설명하기를 음악으로 삼고, 5종경기에다가 종교적 의식의 가무를 첨가하여 체육으로 삼아, 이 둘을 통하여 소년들이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교양인으로 교육되었다. 청년기에는 교육과정이 대단히 세분화되어서 중세 시대에 정리되어진 7개의 자유 교과목들의 명칭과 형태를 갖추었다. 음악은 문법(Grammatik), 수사학(Rhetorik), 대화술(Dialektik), 그리고 산수(Arithmetik), 기하(Geometrie), 점성술(Astronomie), 음악이론(Musiktheorie)으로 이루어졌으며, 체육은 소년기의 체육에다가 성을 쌓고 전투태형을 갖추는 다양한 군사훈련이 덧붙여졌다. 이러한 전문화된 체육과 음악을 통하여 청년들은 정치적 덕(arete)을 갖춘 인간으로 교육되었다. 그리하여 서양의 교육의 역사에서 줄곧 확인되는 교양교육의 본질적인 모습이 이루어졌다. 앞에서 열거된 음악의 7과목들은 이미 소크라테스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보다 높은 전공교육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 교육내용이요, 형식적 도야재로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기본교과물(propaedeutata)로서 미래의 정치가를 개성 있는 인격인으로 교육함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참된 교육에 관한 생각이 한없는 多知主義에 빠져들지 않도록 고쳐져야 했다.

교육과정의 이론의 역사에서 플라톤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플라톤의 「국가」와 「법률」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교육과정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틀과 의미가 제시되었다. 플라톤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이고 세계관적인 위대한 구상 아래서 그때까지 산재하여 있었던 교수내용들을 하나의 형식적·계획적인 교육과정으로 정립하였다. 여기서 그는 모든 과학들의 일원성과 내적 연관성을 중시하였으며, 교육받는 인간의 소질과 성취에 따른 선별의 과정으로서 그리고 바른 지식의 획득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그의 교육과정은 언어적이고 수학적인 교과목들로 짜여져 있으며, 모든 자유로운 남녀 시민들을 위한 일반적인 교양교육으로 제공되었다. 그의 교육과정

은 이중적인 전제 위에서 짜여졌다. 첫째로 인간은 정신능력에 따라서 감각적·육구적, 용기 있는, 그리고 이성적 인간으로 분류 가능하고, 이에 따라 절제, 기개, 그리고 지혜의 덕목들로 그들이 교육되어져서 국가의 세 종류의 신분계층을 구성한다. 둘째로 인간을 교육 없는 상태에 내버려 두면, 인간은 감각적 인식의 통로를 통하여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림자나 허깨비를 실상으로 알고 편견에 사로잡힌다. 따라서 인간에게 순수 사유의 능력을 훈련시켜서 존재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인간은 참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전제는 그의 이데아의 철학에 의하여 편견에서 지식에 이르는 인간의 교육과정을 낳았다. 이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기초적 체육, 실천 중심의 일반 교육과정, 군사훈련과정, 이론 중심의 일반 교육과정, 그리고 군대와 국가관리의 실습 등 다섯 단계들로 짜여져 있다.<sup>5)</sup> 여기에서 첫째 단계는 일종의 예비교육의 단계이며, 셋째와 다섯째 단계들은 선별과 실습교육의 단계들이므로, 교양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후에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교육과정은 두번째와 네번째 단계들이다. 이들은 모두 커리큘럼의 구성이 같다. 다만 두번째는 실천(Praxis)에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고 네번째는 이론(Theorie)에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둘을 우리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또는 기초 교양교육과 전문 교양교육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문 교양교육의 단계는 바로 오늘날의 대학교육의 단계에 해당된다. 플라톤은 국가의 방위자와 지배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이 단계를 구상하였다. 이 단계의 커리큘럼은 산수, 기하 1, 기하 2, 점성술, 그리고 대화술의 다섯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산수는 수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감각적 인식의 수준으로부터 순수 사유를 통한 존재의 인식능력으로 눈뜨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하 1은 평면술, 2는 입체술 다룬다. 점성술은 운동의 법칙을 다루며, 대화술

5) Platon, *Politeia*, 제 7권.

은 철학적 문답법으로서 오직 理性의 談論을 통하여 眞理 자체의 인식에 이르는 사고능력의 훈련이다.<sup>6)</sup>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이 커리큘럼은 哲人 곧 治者에게는 기초적 교과목들이요, 방위자 곧 軍人에게는 유용한 지식으로서, 진리를 향하여 일보일보 전진하는 길로서 제시되었다. 둘째로 여기에는 자연의 결음결이에 따른 합자연법칙적 교수·학습의 원리가 전제되어 있어서, 이 원리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동시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수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먼저 예비교육에서 읽기와 쓰기 같은 문법(Grammatik)의 학습을 통하여 교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닦는다. 그 후에 학생들은 산수와 기하를 통하여 2차원과 3차원의 세계를 학습하고, 점성술에서 4차원의 지식을 닦는다. 그리곤 대화술을 통하여 이성에 의한 담론의 능력을 쌓는다. 셋째로 이 커리큘럼은 神的 필연성에 따른 교안이다. 그리하여 철인과 방위자뿐만 아니라, 실천 중심의 단계에서 일반 시민과 의사, 기술자, 건축자 등이 모두 이 커리큘럼을 통하여 자자의 소질과 필요에 따라서 교육되고 선별된다. 철인은 이를 통하여 이데아의 인식에 이르도록 짜여져 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짐작의 그리고 기껏해야 신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간이 그가 현재 머물러 있는 생성의 세계에서 오성적 사고와 지성의 수준으로 교양되어 존재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보장되어 있다. 이를 플라톤은 그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에 이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이 모든 학문의 연구는 …… 속박에서 벗어나서 …… 영혼 안에 있는 가장 훌륭한 부분을 이끌어서 실재하는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을 보기까지 이끌어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일세.”<sup>7)</sup>

플라톤에 의하면 생성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이라는 말 아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육을 잠재능력의 점진적인 교양을 통한 자아 실현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education의 어원에서 교육을 위로 이끌어 올린다(e-ducare)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톤에 의하면 인간은 이미 교육 없는 상태(apaidusia)에 있기 때문에 교육 있는 상태(paideia)에로의 철저한 전환을 통하여 비로소 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일상성으로부터의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일상성으로부터의 탈피와 전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은 어원에 있어서 코베니우스의 해석대로 무교육의 상태에서 “밖으로 이끌어 내어서(e-ducare)” 교육의 상태 “안으로 세우는(in-stituere)” 활동이다.<sup>8)</sup>

존재의 세계를 인식하고 참된 지식(episteme)을 획득하는 일은 철인에게 주어지고 있고 가능한, 또는 앞에서 언급한 교육과정을 거쳐서 도달 가능하고, 여기에 도달한 자는 철인이 되는 교육이다. 때문에 이러한 교육에는 엄격한 정확성과 최고의 신중성(akribeia)이 요청된다.<sup>9)</sup> 따라서 후에 중세기의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교과목들로 수용되고 발전되어진 이 커리큘럼은 기초적 교육과 실천 중심의 교과목들 그리고 군사교육과정과는 전혀 다른, 즉 그 이전 단계들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교육이다. 바로 이와 같은 “가장 치밀한 교육(akribestate paideia)”<sup>10)</sup>이 철인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이다. 이렇게 볼 때에 교양교육은 다시금 플라톤의 표현을 빌리면, 육체의 훈련으로서의 체육 이후에 오는 정신의 체육에 해당되는 교육으로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치밀한 교육이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에 나오는 교육과정은

6) 같은 책, 같은 곳. 플라톤은 그래서 “전환의 기술”(518 d), “생성하는 것으로부터 실재하는 것으로 영혼을 끌어감” 학문(521 d)을 말하고 있다. 조우현(역), 국가, 삼성출판사, 1982에서 인용.

7) Platon, Politeia, 조우현(역), 국가, 삼성출판사, 1982, 274~275쪽(531d-532d).

8) 오인탁, J.A. Comenius의 汎教育(Pampaedia) 理論, 神學思想, 29 (1980 여름), 312~350쪽 참조.

9) W. Jaeger, Paideia, Die Formung des griechischen Menschen Band 3, Berlin, 1947, S. 2.

10) 같은 책, 같은 쪽; Platon, Politeia, 503d.

플라톤이 말년에 쓴 「법률」에서 일종의 사회적 변천의 모습을 띠게 된다. 앞에서 명확하게 구별되었던 교육들이 여기서 하나의 등근 모습으로 합쳐져서 그 시대의 세계관적·종교적 인간 이해에 기초하여 국가시민의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읽기, 쓰기, 문법, 시와 산문, 음악, 산수, 기하, 점성술, 체육 그리고 전쟁과 가정과 국가관리에 관한 지식까지 모두 합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을 이루고 있다. 이로서 사회의 서로 다른 신분 계층들은 회람의 고유한 단일국가적 의식을 통하여 하나의 전체로 이해되고, 이에 따라서 일반적이고 일상적이며 습관적인 등근 교육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회람어로는 *enkyklios paideia* 라고 하며 이는 글자 그대로 일상적 교육 또는 일반 교육의 의미를 지녔다. 오늘날 백과사전(*Encyclopedia*)이라는 말로 우리들의 귀에 익숙해져 있는 이 말은 그러나 플라톤이 생각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대로 수용한 본래적인 의미에 있어서 어떤 백과사전적 지식의 주입을 목적으로 하는 커리큘럼과는 거리가 멀었다. 엔키클리오스 파이테이아는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Akademia*)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리케이온(*Lykeion*)의 커리큘럼이었으며 아카데미아와 리케이온에 의하여 회람의 문화와 학문이 보존되었고 발전되었다.<sup>11)</sup> 엔키클리오스 파이테이아는 인간 정신의 계발을 목적으로 이룰 통하여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多面性의 조화롭고 탁월한 실현을 꾀하는 커리큘럼이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 교양교육’으로 번역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아카데미아와 리케이온의 교육과정으로서의 이 일반 교양교육은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강한 인간의 교육과 덕을 알고 행하는 인간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였다.

엔키클리오스 파이테이아는 후에 스토아 철학

자들(*Stoiker*)에 의하여 불필요한 커리큘럼으로 설명되어졌고, 에피쿠어(*Epikur*)에 의하여 거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헬레니즘의 시대에 최초의 공적인 교육과정(*Prostetagma Mathemata*)이 확정되었을 때에 기본 골격으로 수용되었으며, 이 시대의 자유회람인의 교육특권으로 인정되었다.<sup>12)</sup> 그리하여 엔키클리오스 파이테이아는 교육과정의 그리고 자유회람인들이 받는 일반 교양교육의 대명사가 되었다. 로마제국이 세계를 정복한 후에도 헬레니즘에 의하여 로마제국이 문화적으로 정복당하면서 엔키클리오스 파이테이아는 라틴어로 *Enkyklios disciplina* 로 남았다. 그러나 이 말은 포괄적 학문이라는 의미로서 ‘온전한 등근 교육’이라는 본래적 의미는 담고 있었으나 사실상의 의미는 달랐다. 주전 1세기에 비트루비우스(*Vitruvius*)는 회람어 *Encyclos paideia* 를 라틴어로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일반 교양교육이라는 의미 대신에, 다만 등근고, 온전하며 그리고 완성된 이라는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건축사라는 의미로,<sup>13)</sup> 즉 교육의 상태가 아니라 교육의 형식을 형용하는 말로 이해하였다. 퀸틸리안(*Quintilian 35~95*)은 회람인들이 사용하는 말 *Encyclos paideia* 를 교육의 상태와 내용으로 구별하여 수용하였다. 그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 교육받은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교육은 회람인들에게 일반적인 교육이었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모든 자유시민이 상호이해와 공동작업의 기초로서 획득하여야 할 인간적 자질이 문제였다. 반면에 퀸틸리안이 라틴어로 *Orbis doctrinae* 로 표현한 말은 교육과정을 이루고 있는 학문들의 내용을 의미하였다. 여기서 학문들은 어떤 직업교육적 목적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철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삼고 있는 순수한 응용과학들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교과목의 내용의 질이 문제였다. 따라서

11) J. Dolch, 앞의 책, S. 43에서 Dolch는 “헬라는 아카데미아 안에서 그리고 리케이온 안에서 살았다”라고 묘사하였다.

12) J. Dolch, 앞의 책, S. 52.

13) 같은 책, S. 64. 부르박히는 라틴어 *encyklios disciplina* 를 ‘넓고 일반적인’이라는 교양교육의 상태를 형용하는 말로 봄으로써 회람어의 의미와 동일시하였다. 따라서 이는 구별해서 정리해야 할 것이다. J.S. Brubacher, 李元浩(역), 教育史, 교육문제 변천사, 文行社, 1984, 550쪽.

Encyclios paideia는 교양교육으로서 이중적인 특성으로 정리되어진다. 첫째로 이는 당대의 문화를 넓고 일반적인 시각에 따라서 인간의 다방면적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는 통괄적인 지식의 무리들로 분류한 교과목들로서, 직업교육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순수한 도야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둘째로 이는 주로 인간의 머리(정신)의 계발을 목적하되, 가슴(정서와 의지)과 손(노동과 소유 욕망)의 건전한 도야도 함께 목적하고 있었다. 즉 전인적인 인간 형성을 위한 교육이었으며, 정신의 훈련을 위한 교육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지적 능력이 강조되는 교육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교육은 결코 아니었다. 이러한 교양교육은 중세기에 7개의 자유교과목(septem artes liberales)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고대 희랍의 일반 교양교육과 중세기의 7개의 자유교과목은 동일시될 수 있으나 로마제국의 Enkyklios doctrina는 동일시될 수 없다.

### 3. 中世의 ‘自由’ 敎養敎育 : Septem artes liberales

7개의 自由敎科科目은 이미 고대 희랍시대의 케벤론자들에게 의하여 운팍이 잡혀지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계속 다져졌으나, 그 분명한 모습은 중세기의 스콜라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홀나의 유명한 수도원장이었던 후라바누스(Hrabanus Maurus 780~856)는 820년대에 이미 7개의 자유교과목을 성서의 십오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 研學의 課程으로 삼았다.<sup>14)</sup> 7개의 자유교과목은 문법, 수사학, 변증법 또는 논리학의 3형식과목(Trivium)과 산수, 기하, 음악, 천문학의 4개 내용과목(Quadrivium)으로 구성되었다. 형식과목은 언어와 따라서 인격 형성과 관련되어져 있으며, 내용과목은 지식과 따라서 시민의 자질 형성과 관련되어져 있다. 이미 케벤론자들은 이런 생각

을 하였었다. 인간의 영혼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나 언어는 불변적이다.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의 도중에 있는 나의 영혼과 너의 영혼이 서로서 의사론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언어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정확히 알던 알수록 인간의 영혼은 그만큼 더 빨리 그리고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다. 문법은 언어의 구조와 형성에 관한 지식이다. 마치 무기의 제작 기술을 알아야 무기를 소유할 수 있듯이 문법을 알아야 언어를 소유할 수 있다. 수사학은 묘사 능력에 관한 지식이다. 마치 무기의 사용 방법을 숙달하여야 하듯이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묘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변증법 또는 당시의 성격으로 비추어 보아서 대화술이라고 표현해야 마땅한 세번째 과목은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다. 마치 무기를 제조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전의 경험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언어도 두 영혼이 실제로 말을 만들어서 던지고, 던져진 말을 받아서 되던지는, 그리하여 주장한 내용을 관철시키거나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또 논리적 모순이 확인되면 즉시 개방적으로 자신을 고쳐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대화술은 이러한 언어의 실천 방법에 관한 기술이었다. 이렇게 문법과 수사학과 변증법의 세 과목들은 모두 인간의 영혼의 존재와 진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과목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형식과목들이라고 칭하였으며, 지식에 관한 내용과목들보다 우선적인 위치를 부여하였다.

7개의 자유교과목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의 영역에 관한 분류에 따라서 정리되었는데, 이미 10세기경에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수단과 길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안으로서 받아들여졌다. 고대 희랍문화의 철학적 산물이 중세 기독교문화의 보편타당한 교육과정으로 정착한 것이다.

7개의 자유교과목은 唯名論(Nominalismus)과

14) Hrabanus Maurus, *De clericorum institutione* III, 16, Migne 392B. 후라바누스는 독일의 첫번째 스승(der erste Praeceptor Germaniae)으로 존경을 받았다. 두번째 독일의 스승은 Melancthon이었다. J. Dolch, 위의 책, S. 104; F. Blättner, *Geschichte der Pädagogik*, Heidelberg, 1961, S. 35 참조.

實在論(Realismus)의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12세기에는 스콜라학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으로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 호노리우스(Honorius Augustinensis)는 “무지는 추방이요 지혜는 내면적 인간의 고향이다. 이 추방으로부터 고향에 이르는 길은 학문이다”<sup>15)</sup>라고 하였다. 그는 고향에로의 길을 재촉하는 자는 10개의 교과들의 길을 거쳐 간다고 보았다. 10개 교과목들은 문법, 수사학, 변증법, 산수, 음악, 기하, 천문학, 물리학(Physik), 기계학(Mechanik), 그리고 경제학(Ökonomie)이다. 호노리우스는 7개 자유교과목들을 10개 교과목들로 증가시켰다. 이는 십계명처럼 10이라는 수가 지니고 있는 종교적이고 비유적인 의미가 작용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광물학, 식물학, 동물학, 정치학, 윤리학 등 당시의 새로운 학문들의 탄생과 더불어 일반 교양교육에 다른 세속적 지식영역들이 보완되어져야겠다는 요청의 결과이다. 그러나 호노리우스의 주장은 중세 초기에서 중기에 이르기까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자유교과목들은 계속하여 7개로 머물러 있었다. 다만 신학에 의하여 신학에 이르는 교양교육과정으로 수용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콘체스(W. von Conches 1080~1154)는 硯學의 질서를 다음과 같은 단계들로 제시하였다.<sup>16)</sup> 먼저 문법, 변증법, 수사학의 3개 형식과목들을 연학한 후에 학문(Philosophie)을 연학한다. 학문의 연학에서는 다시 먼저 산수, 음악, 기하, 천문학의 4개 내용과목들을 연학한 후 성경을 연구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들의 인식을 통하여 창조자의 인식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자유로운 인간의 품위를 위한 교과목들로 고대에 형성된 7개 자유교과목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로 향하는”<sup>17)</sup> 즉 신학에로 나아가는 교양교육과정이 되었다. 7개 자유교과목은 14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에서 미술과 건축의 즐겨 찾는 테마가 되었다. 예를 들면 프라이부

르크(Freiburg)에 있는 1260~75년에 건축된 성전의 입구 위에는 콘체스가 열거한 순서대로 자유교과목의 여성상들이 조각되어 있다. 호노리우스가 인간의 영혼의 고향에 이르는 도시들로 자유교과목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였던 것처럼 신도들은 배움의 정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돌위는 그래서 일반 교양교육(Enkyklios paideia)과 7개 자유교과목(Septem artes liberales)의 교육과정이 비록 각 과목들이 내적으로는 조금씩 변질되어 갔으나 그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2000년 동안이나 교육을 지배하여 왔다고 진단하고 있다.<sup>18)</sup>

#### 4. 學問의 硯學와 教養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된다. 그러면 중세 시대의 대학에서 7개 자유교과목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대학교육은 주로 어떤 동거들에 의하여 유지되었으며 활발하게 발전되어 왔는가?

중세의 사회에서 대학들은 그들의 고유한 위치와 높은 명성을 누려 왔다. 대학은 사회의 계층적 질서와 교회적 위계질서에 묶여 있지 않았다. 대학은 대학의 고유한 특권을 누렸으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력에 종속되지 않았었다. 많은 학자들이 대학의 이러한 특수한 위치를 시대적 조건들 속에서 해명하려고 노력해 왔다.<sup>19)</sup> 대학의 발생이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활성화된 교역과 교통수단의 발달, 화폐경제와 초기 자본주의의 시작,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탈리아와 불란서에서 형성된 여러 도시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농업의 진흥과 농민의 사회적 위치의 고양에 의하여 조장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대학의 발생과 성장이 이러한 사회적 계 조건들에 의하여 촉진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대학의 발생 원인이 될 수는 결코 없다. 대

15) Honorius, *De animae exilio*, Migne P.L. 172, 1243A, J. Dolch, 위의 책, 115쪽에서 재인용.

16) J. Dolch, 앞의 책, S. 120f.

17) H.M. Elzer, *Bildungsgeschichte als Kulturgeschichte*, Bd. I, Ratingen, 1965, S. 111, “A Deo et in Deum.”

18) J. Dolch, 앞의 책, 154쪽.

19) A. Reble, *Geschichte der Pädagogik*, Stuttgart, 1967, S. 56~59 참조.

학은 초기에 시민계층의 형성과 더불어, 그리고 도시의 생활문화와 행정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경제적·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되었으며 뒷받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대학을 유지시킨 기본적인 힘은 되어 주었으나 대학의 탄생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없다. 국가나 교회의 주도권의 행사 또는 귀족이나 시민계층의 관심이 대학의 발전을 촉진시켰음에는 틀림없으나 대학의 존속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우리가 아는 데로 대학은 초기부터 법학과 의학과 신학의 연학을 위한 장소로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의사나 판사나 승려가 되기 위한 직업교육의 필수적 과정도 아니었고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도 아니었다. 환언하면 대학은 발생 초기에서부터 근세 초기에 이르기까지 전문직업교육의 기관으로만 있었거나, 전문직업 교육기관으로 계속 발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물론 이미 중세기에 대학은 미래의 의사, 판사 그리고 승려들로 우뚝거렸으며 또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세기의 대학은 분명히 직업교육의 장소이었음엔 틀림이 없다. 그래서 대학들은 설립 초기에서부터 이미 법학이나 의학 같은 전문 분야를 특수하게 발전시켰으며 명성을 얻기도 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데로 많은 이탈리아의 대학들은 법학, 그리고 몽펠리에(Montpellier) 같은 남부 불란서의 대학은 의학이 전문화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점차로 대학들은 가능한 한 모든 전문적 분야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모를 가꾸어 갔다. 그러나 대학은 오늘날의 대학처럼 의학, 법학, 신학을 망라한 다음에도 여전히 전문 직업교육의 기관으로 있기보다는 일반 교양교육의 기관으로 머물러 있었다.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다만 일반 교양교육을 받기 위하여 대학에 들어 왔다. 그들은 소위 '자유' 교과목들의 연학에 만족하였다. 그들은 귀족과 같은 명예와 특전이 주어지는 학위과정을 구태여 밟으려 하지 않았다.

이미 대학의 초기부터 7개의 自由教科目은 오늘날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교양과정에 해당하는 教授學部(Artistenfakultät)에서 正經化되어져 있었다. 이 과목들은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첫째로 당시의 대학은 어떠한 입학시험도, 입학울 위한 조건도 없었다. 그래서 전공영역의 연학을 하기에 충분한 학력을 지니지 못한 학생들은 대학에 온 후에 추후적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했다. 더군다나 학생들 가운데 비교적 어린 나이에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았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재학기간이 길어졌다. 둘째로 자유교과목이란 말이 이미 밝혀 주듯이 이 과목들은 백과사전적 지식의 전달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정신의 자유로운 도야와 실현을 위한 과정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었다. 말하자면 이 과목들은 사고능력을 키우고 인격을 닦으며 지성을 계발하는 正道였던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중세기 대학들의 교양학부에는 언제나 수많은 학생들로 들끓었다. 교양학부는 후에 철학부로 발전하였는데, 교수와 학생의 수에 있어서 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대학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딘 대학으로 유명한 뤼텐베르크(Wittenberg)를 예로 들 수 있다. 뤼텐베르크는 1536년에 이미 “교양학부는 기원이요 기동이며(Ursprung und Stamm) 다른 학부들과 과목들에 시초를 제공하였고 가장 많은 학생들의 무리로 분비었다.”<sup>20)</sup> 쾰른대학에서도 이미 15세기 중엽에 모든 등록된 학생들의 70%가 교양학부에, 20%가 법학부에, 그 나머지가 신학부와 의학부에 속해 있었다.<sup>21)</sup> 파울젠(Fr. Paulsen)도 15~16세기에 독일의 여러 대학들을 통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등록학생들의 대략 1/4에서 1/3이 교양학부만 마치고 바칼로레아 학위를 받고 나갔으며, 약 1/20에서 1/16이 마거스터 학위를 받고 졸업하였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들이 왔을 때처럼 단순한 학생들(Scholaren)로서 대학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중세기에 대학생들의

20) Fr. Israel, *Das Wittenberger Universitätsarchiv*, 1913, S. 108f.

21) H. Grundmann, *Vom Ursprung der Universität im Mittelalter*, Darmstadt, 1976, S. 39.

22) H. Grundmann, 같은 책, S. 38.



절대 다수가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유교과목들의 연학을 통한 일반 교양교육을 받기 위하여 대학에 왔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일반 교양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교양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학문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학문을 알고 획득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보다 분명히 말하면, 전문 직업교육이나 일반 교양교육, 또는 국가나 교회가 인정하고 제공하여 주는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자극이나 동기 같은 것들이 대학의 가능한 기원과 본질이 아니었고, 다만 학문의 연구에 대한 관심과 정열이 대학의 기원과 본질의 근거였다.<sup>23)</sup> 그리고 볼로냐와 페티와 같은 가장 오래된 대학들의 탄생 초기에서부터 중세 중기의 대학 설립의 제 2차와 제 3차의 물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성격은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중세기의 대학에서 교양교육은 신학을 중심으로 한 전문교육들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보는 이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sup>24)</sup> 자유로운 인간정신의 도야로서의 교양교육은 문예부흥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의 연학의 주류로 백백히 흘러왔다. 그리하여 인본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일반적이고 자유로운 교양교육의 이념은 재확인 되었으며, 연학에서 고전어와 인문학의 비중은 더욱더 커졌다. 인본주의 시대에 자유과목들로부터 언어적·정신적 과목집단들, 수학적·자연과학적 과목집단들, 그리고 음악적 과목집단이 상호간에 학문으로서의 동등권 인정의 바탕 위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과정도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인본주의는 샤펜발트(W. Schadewaldt)의 유명한 정의에 의하면 "인간의 인간적인 것에 관한 이념"이다.<sup>25)</sup> 인본주의는 인간의 새롭고 자율적인 자아 이해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古代의 古典들의 고유한 가치를 확인하였으며 고전어의 세계를 교육학적·교수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훔볼트(W.V. Humboldt)가 인간의 품위를 개성과 보편성(Universalität)과 전체성(Totalität)의 도야이념에서 확인하기 이전에 이미 세계를 자기 자신 안에 품은, 자신의 고유한 작품으로서의 도야된 인간이라는 인본주의의 주체적 인간관이 형성되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그러한 본래적인 인간 존재를 실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일반적이고 자유로운 교양교육이었다.

교양교육에 대한 인본주의적 이해는 19세기에 학제와 관련되어 다시 확인되고 있다. 신인본주의에 의하여 독일에서는 김나지움(Gymnasium)이 "정신능력의 연습학교"요 "정신적 씨름터"로서<sup>26)</sup> 새롭게 이해되고 조직되었다. 19세기에 이러한 김나지움은 이미 대학 입학에 준비하는 예비학교가 아니라 "학문의 수단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신적 발달을"<sup>27)</sup> 꾀하는 학교였다. 따라서 짜여진 교육과정의 의존하지 아니하고 교사를 통하여 그리고 학교의 교육적 정신과 질서를 통하여 학생을 교육함을 관건으로 삼았다. 학생들은 그들이 앞으로 함께 살아야 할 사회공동체의 성숙한 일원으로 교육되었다. 김나지움은 이렇게 하여 미래의 정신적 귀족을 배양하는 최고의 학교로서 19세기의 학교교육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이렇게 김나지움이 종래에 대학의 교양학부가 하던 교육을 보다 더 철저하게 수행하는 교육의 단계로 성장하면서 서구에서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점차로 사라져 갔다. 교양교육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확인되어지는 모습으로 변모하여 갔다.<sup>28)</sup> 하나의 학부에서 학문연구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과목들의 설장으로, 필수적인 이수에서 자유로운 수강으로, 수강의 제한이 없고 평가도 없는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져 갔다.

23) W. Jens, *Eine deutsche Universität, 500 Jahre Tübinger Gelehrtenrepublik*, München, 1977, S. 44~71.

24) 에른 들턴, J.S. Brubacher, 앞의 책, S. 551f.

25) W. Schadewaldt, *Sinn und Wert der humanistischen Bildung in Leben unserer Zeit*, 1956.

26) W. Roessler, *Die Entstehung des modernen Erziehungswesens in Deutschland*, Stuttgart, 1961, S. 291.

27) 같은 책, S. 292.

28) 오인탁, 서독 대학의 교양교육, 大學教育, 제 2호(1983, 3), 45~49 참조.

## 5. 形式과 內容의 調和

大學의 主業에 대한 확인과 교양교육의 역사는 걸음걸이를 함께 하여 왔다. 대학은 지식을 수집하는 대신에 인식의 전체를 묘사하는 일에 관심을 쏟아 왔다. 과학은 이러한 의미에서 지식의 체계적 서술로서의 교과(Disziplin)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경험, 통찰, 이해, 그리고 행동양식들을 포괄하는 정신적 생활형식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대학은 모든 특수한 지식들과 인식들을 조직적으로 한 곳에 모으고 내적으로 서로서로 관련된시켜 수용하는 일을 과제로 삼았다. 중세의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공동체(universitas docentium atque discipulorum)로서의 대학은 여기에서 모든 학문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위로 조직(Universitas litterarum)이 되었다.

이러한 대학의 뿌리는 슐라이어르мах러에 의한 “온전한 개인적 자유”이다.<sup>29)</sup> 대학의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사색의 흐름을 매개하여야 하며, 자유의 정신이 대학의 조직과 환경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수업은 지식의 설명이어서 안 되고, 인식의 제생산이어서 인식의 과정에서 이성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에 연구와 교수의 일원성의 원리가 근거하고 있다. 교수함에 있어서 연구 자체가 새롭게 착상되고 가능해진다. 때문에 대학의 참된 정신인 자유로운 입은 교수는 고독하다.

플라톤은 참된 지식은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념에 근거하여

그는 인간을 무교육의 세계에서 교육의 세계로, 형성에서 존재어로, 편견에서 지식으로 옮길 수 있는 일반 교양교육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플라톤의 정신은 훔볼트에 의하여 근대의 대학의 기본 이념으로 재확인되었다. 그것은 학문하는 자의 자유와 고독이라는 내면적 원리에 기초한 대학의 연구와 교수의 자유라는 외면적 법칙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sup>30)</sup> 훔볼트의 정신은 학문과의 만남이 곧 교육이라는, 그래서 이러한 만남을 언제나 새롭게 가능하게 하고 실현하여야 하는 것이 대학의 교육적 과제라는 점을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자유 교양교육의 전통에 흐르는 정신이다. 이를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교양과목은 학문세계와 학생들이 만나는 장소이어야 하며, 이러한 만남이 교육일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교양교육은 19세기말부터 능력의 배양과 지식의 축적, 자연과학적·사회과학적 기초교육과 고전적·인문과학적 기초교육의 대립 내지 긴장관계의 양상을 갖게 되었다. 이는 그러나 일반 교양교육과 자유 교양교육의 서구적 전통에서 확인되는 형식과 내용의 동시적 강조라는 시각에서 볼 때에, 교양교육의 편중화 경향일 뿐이다. 오늘날 교양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의 안과 밖에서 교양교육에 대하여 제기되는 슬한 요청들 가운데서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면 정신의 자유로운 씨름마당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냐이다. \*

29) H. Wenke, *Das Vermächtnis einer Universität an unsere Zeit*, Universität Hamburg, 1961, S. 21.

30) 예를 들면, H.P. 블로이엘, 이광주(역), *知性的 몰락, 독일 대학의 정치사회사*, 한길사, 1980, 23~29쪽.